호랑이 방망이, 가장 매서웠다

KBO리그 전반기 마감
타이거즈 투·타 성적

팀 타율 0.310 전체 1위
규정타석 3할 이상 6명
김선빈 0.382 리그 1위
9번타자 첫 타격왕 도전

‘100억 사나이’ 최형우
타점 1위 등 전부문 상위권
헥터·양현종 동반 20승 가능

타율 0.382로 리그 수위타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KIA 김선빈과 타율 2위·홈런 3위 등 공격 전 부문에서 고루 정상급 성적을 내고 있는 ‘100억 사나이’ 최형우. /연합뉴스

2017시즌 전반기 마감을 눈앞에 둔 KBO리그는 타고투저 현상이 이어져 29명(7월 12일 기준)의 3할 타자가 쏟아졌다.

이중 팀 타율 1위 KIA(0.310)는 주전 선수 가운데 6명이나 규정타석 3할을 돌파했다.

군 복무 후 처음으로 풀 시즌을 치르는 김선빈은 타율 0.382로 리그 수위타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김선빈이 마지막까지 타율 1위를 유지한다면, 1994년 이종범(0.393) 이후 첫 유격수 타격왕과 최초의 9번 타자 타격왕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KBO리그에 ‘FA 100억원 시대’를 열었던 최형우는 ‘100억원이 아깝지 않다’는 호평을 받는다.

타율 2위(0.375), 타점 1위(81점), 홈런 공동 3위(22개), 안타 공동 2위(113개), OPS(출루율+장타율·1.178) 1위 등 공격 전 부문에서 고루 정상급 성적을 내고 있다.

여기에 이적생 이명기(0.349), 안치홍(0.333), 나지완(0.325), 로저 버나디나(0.318)까지 3할을 돌파한 KIA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반기를 선두로 마감했다.

홈런 부문에서는 ‘거포 군단’ SK의 압도적인 힘이 눈에 띈다.

전반기 팀 홈런 152개로 2위 두산(98개)보다 50% 이상 많은 SK는 최정(30개), 한동민(26개), 김동엽(18개), 나주환(14개), 제이미 로맥(14개), 정진기(11개)까지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렸다. 최정과 한동민 두 명이 때린 홈런(56개)은 kt(55개), LG(52개)의 팀 홈런보다도 많다.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면 최정은 50홈런으로 시즌을 마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KBO리그 역대 50홈런 돌파 사례는 5번뿐이었다. 이승엽(삼성)과 박병호(넥센)가 두 번, 심정수(현대)가 한 번 성공했다. 최근 사례는 2015년 박병호(53개)다.

이종범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의 아들 이정후(넥센)는 고졸 신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활약으로 신인상을 사실상 예약했다. 이정후는 팀이 치른 85경기에 모두 출전해 타율 0.329(13위), 102안타(공동 9위), 65득점(4위), 31타점을 올렸다. 올스타에도 선정된 이정후는 후반기 사상 첫 ‘고졸 신인 3할-전 경기 출장’을 목표로 뛴다.

마운드에서는 헥터 노에시(KIA)의 ‘무패 행진’이 화제를 모았다. 헥터는 전반기 17경기에 선발 등판해 116.2이닝(1위)을 던져 14승(1위) 무패 평균자책점 3.16(6위)을 거뒀다.

팀 동료 양현종은 개막 후 등판한 7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면서 12승(2위) 3패 평균자책점 3.99로 전반기를 마쳤다.

헥터와 양현종은 후반기 동반 20승을 노린다. KBO리그 마지막 ‘동일 구단 20승’은 1985년 김시진-김일융(25승)이었다.

전반기 마운드에서 가장 빛난 ‘새 얼굴’은 박세웅(롯데)이었다.

박세웅은 16경기에 선발 등판해 9승 2패 평균자책점 2.44를 찍었다. 6월 초까지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했던 박세웅은 리그 평균자책점 1위 타이틀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장 끝내기포 최형우 “ NC전 스윕패 자존심 많이 상했었다”

덕아웃 T 톡톡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 ‘캡틴’ 김주찬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컸던 전반기였다. 김주찬은 김기태 감독의 뚝심 기용에도 시즌 초반 지독한 부진에 시달리면서 2군에 다녀오기도 하는 등 부침의 시간을 보냈었다. 13일 NC와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김주찬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미안한 마음이 컸다. 팀원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주장에 대한 부담감은 못 느낀다. 내가 못 했기에 부담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내가 잘하면 될 것”이라며 “공을 많이 보려고 한다. 일단 출루를 많이 하자는 생각이다. 다른 타자들도 잘 쳐주고 있고, 출루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에 관해 이야기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 선수단의 자존심을 살린 시원한 끝내기 홈런이었다. KIA는 지난 12일 NC와의 홈경기에서 연장 10회 터진 최형우의 끝내기 홈런으로 극적인 역전극을 연출했다. 이날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우측 안타로 공세를 시작했던 그는 이후 솔로포와 중전안타를 터트리며 맹활약했다. 그리고 9회 김주찬의 동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연장으로 들어갔던 승부. 10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최형우는 NC 마무리 임창민의 초구 직구를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기며 짜릿한 끝내기쇼의 주인공이 됐다. 앞선 마산 원정에서 싹쓸이 3연패를 당한 뒤 다시 만난 상대. 최형우는 “앞서 NC전서 1위는 하고 있었지만 자존심이 상했었다”며 끝내기 홈런에 대한 의미를 언급했다. 이날 첫 타석 안타로 5년 연속 200루타에 성공했던 최형우는 “많은 선배, 동료들 꾸준하게 야구를 해오는 이들이 많다. 200루타라는 의미도 있지만 꾸준히 해왔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싶다”며 묵묵하고 꾸준하게 걸어온 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하얀 것만 보이면 치자고 생각했다 = 12일 극적인 최형우의 끝내기 홈런의 시작점에는 대타 신종길이 있었다. 4-6으로 뒤진 9회 선두타자 이범호가 중견수 플라이로 아웃되면서 NC의 승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1사에서 김민식의 대타로 나온 신종길이 좌측 텍사스성 안타로 출루하면서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 김선빈의 땅볼로 2루로 향하던 신종길이 아웃되기는 했지만 2사 1루의 상황에서 이명기의 좌전안타가 이어졌다. 그리고 김주찬이 중앙 펜스 맞는 2루타로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면서 승부를 6-6 원점으로 돌렸다. 연장으로 끌고 간 승부는 끝내기 홈런을 터트린 KIA의 승리였다. 값진 대타 안타를 터트렸던 신종길은 “하얀 것만 보이면 치자는 생각이었다”고 타석에 섰던 상황을 말했다.

▲다리가 떨리더라 = 선발보다 어려운 불펜 자리다. KIA는 11, 12일 불펜으로 출격한 ‘선발’ 임기영과 정용운의 활약으로 연승을 달릴 수 있었다. 임기영에게는 폐렴 이후 복귀전이기도 했던 11일. 마운드에서 특별한 표정 없이 경기를 풀어가는 두 사람이지만 경기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똑같이 “떨리더라”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팀의 승리를 지키고, 상대의 추격을 막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떨렸다”는 두 사람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귀국 후 아버지 발자취 따르겠다”

美 언론, 김기태 감독 아들 건형씨 소개

미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며 야구를 하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기태(48·왼쪽) 감독의 아들 이야기가 현지 언론에 소개됐다.

미국 매체 ‘더 데일리 뉴스’(TDN)는 13일(한국시간) ‘조용한 동의’라는 제목으로 김 감독의 아들 건형(21) 씨의 소식을 전했다.

건형 씨는 워싱턴 주 소속의 아마추어 야구팀 카울리츠 블랙 베어스에서 외야수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입학 전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건형 씨는 “아버지는 우리 형제가 미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야구도 하기를 바라셨다”며 “아버지는 한국에 남고 어머니가 같이 오셨다”고 전했다.

건형 씨는 소속팀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타율 0.394, 출루율 0.476, 장타율 0.451, 도루 5개를 기록 중이다. 팀이 속한 웨스트코스트 리그에서 타율 2위, 출루율 3위, 장타율 14위, 도루 15위다.

이 매체는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김 감독도 자세히 소개했다.

1991～2005년 KBO리그 소속으로 뛰며 통산 타율 0.294, 249홈런, 923타점의 성적을 남겼고 4차례 골든 글러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994년 홈런 1위(25개), 1997년 타율 1위(0.344)였다.

아울러 동메달을 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의 멤버였고, 금메달을 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코치였다.

건형 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아버지와 비슷한 길을 걷는 것이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항상 꿈이었다”며 “(꿈이 실현돼) 한국에서 선수로 뛰게 되면 아마 아버지와 나 모두 다소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 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야구장에 놀러 간 것은 셀 수도 없지만, 김 감독이 건형 씨한테 야구를 가르쳐준 적은 없다고 한다.

건형 씨는 “야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소속팀 코치께 여쭤보라고 하셨다”며 “아버지와 코치 모두한테 야구를 배우면 혼란스러워할 거로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런 태도가 실망스러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해가 되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상처뿐인’ 광주 FC 다시 일어선다

K리그 클래식 21R 내일 울산 원정길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광주 FC의 발걸음이 울산으로 향한다.

광주 FC는 15일 오후 7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과 2017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9일 FC 서울에 이어 12일 상주 상무와 홈경기를 치렀던 광주는 짧은 재정비의 시간을 뒤로하고 울산에서 승점 사냥에 나선다.

빡빡한 일정 속 천국과 지옥을 오간 광주다.

앞서 광주는 서울을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그리고 연승에 도전했던 상주전에서도 전반 13분 주현우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하지만 전반 33분 친정을 상대로 한 상주 여름의 동점골이 나왔고 36분에는 완델손이 비디오 판독 과정도 없이 퇴장조치를 당하면서 광주가 흔들렸다. 그리고 후반 15분 상주 주민규에게 역전골을 내주면서 광주의 연승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잃은 게 많은 상주전이었다.

광주 최전방에서 공격 부활을 이끌었던 완델손이 퇴장으로 빠지게 됐고, 수적 열세 속 접전을 펼치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이 방전됐다.

빡빡한 일정까지 더해진 악재 속에서 울산을 찾지만 서울전에서 엿본 희망을 살려야 한다.

양팀 감독이 지략 대결에 눈길이 쏠리는 경기다.

광주 남기일 감독은 울산 김도훈 감독과 3년간 8번 맞대결을 벌여 2승 5무 1패를 기록했다. 유일한 1패는 2015년 7월 김도훈 감독이 인천을 이끌던 시절에 기록됐으며, 이후 2년간 2승 4무로 앞서 있다.

감독간 전적으로는 광주가 우세지만 전력상으로는 울산이 리그 2위를 달리며 앞서 있다.

하지만 광주는 강팀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광주는 올 시즌에도 리그 선두 전북과 6년 넘게 넘지 못했던 서울이라는 벽도 넘었다.

측면 공격수인 주현우가 울산전 키플레이어다. 주현우는 앞선 상주전에서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하며 부담감을 덜어냈다. 최근 슈팅 빈도는 물론 경기력도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완델손의 공백은 조주영이 메울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광주의 공격을 이끌었던 조주영은 최근 2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만큼 체력적인 부분에서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또 꾸준히 컨디션을 올려온 만큼 득점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다.

연승 도전이 또 실패로 끝났지만 광주가 투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호랑이굴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

ML 커미셔너 “강정호 비자 취득, 어려운 문제”

롭 만프레드(59)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에게도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비자 취득은 ‘난제’다.

미국 일간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12일(한국시간) “만프레드 커미셔너가 미국야구기자협회와 간담회에서 강정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확실한 답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만프레드 커미셔너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아직 강정호가 비자를 받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현재 강정호 상황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며 “일반적으로 비자 문제는 구단이 다루지만, 특수한 상황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돕긴 한다. 지금이 특수한 상황”이라며 강정호의 비자 취득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직은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피츠버그는 올 시즌 강정호의 합류를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다. 관건은 2018년 복귀 여부다.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도 아직은 답을 내놓지 못했다. /연합뉴스